

여대생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홍 숙 기

강원대 심리학과 교수



요즘 여학생들은 내가 대학 다닐 때와 많이 다르다. 동년배 남자들과 말을 놓고 선배는 ‘형’이며, 술은 기본이고, 담배도 숨어서 피우더니 요즘은 용감한 몇 명이 밖에서도 피운다. 물론 내가 있는 (지방)대학에서의 이야기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은 훨씬 ‘진보적’이라고 듣고 있다. 이러한 ‘진보’를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남자같이 행동하면 여성차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남성중심 문화를 깨뜨리는 것이 저런 하찮은 반항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학생’으로만 살아온 그들은 ‘여자’로 살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남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다. 20대

여자작가들의 대답에서 이 깨어있는 젊은 여성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모든 게 달랐어요. ‘여태까지 배워왔던 게 다 거짓말이다. 나에게 이것 가르쳐 주었어야 했다.’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한 것을 깨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회가 지금 어떤 실정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야 했어요. 거기에 적응하면서 내가 여자인면서도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구나라고 느끼고 여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게 노골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신이현씨가 이야기했듯이 결혼, 가족제도였어요. 중요한 것은 여자로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자기가 여자로 살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1) 이소희(1996), 대중문화에 나타난 결혼이야기.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또하나의 문화. p319에서 재인용.

“사회가 지금 어떤 실정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이유는 피해의식을 주기 위해서도, 그런 실정에 순응하라고 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여자가 대학을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선택받은 소수였던 시절은 지나고, 요즘 여학생들은 스스로도 엘리트라고 느끼고 있지 않다. 소수의 ‘슈퍼 우먼’들만 사회진출을 원하는 시절은 지나가고 ‘보통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여학생들은 우선 이 사회의 실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남자가 주인인 세상에서의 우리 여대생들

‘돈 벌어 오는 남편과 가정을 가꾸는 아내’의 남녀구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취업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남녀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고용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3% (25~34세에서 48%)였고, 그나마 관리·전문직은 적고(11.2%) 판매·서비스(32.0%)와 생산직(27.8%) 종사자들이 60% 가량을 이루었다.²⁾ 여자의 평균임금은 남자 임금의 약 60%에 머문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노동력은 판매·서비스·생산직, 싼 노동력이며, 관리·전문직은 아직까지도 남자들의 권한영역인 것이다. “한 영역이 그 사회에 중심적일수록, 한 집단의 권력이 클수록, 여성들이 적게 대표되어 있다. 반대로 한 과제영역이 주변적일수록, 한 집단의

영향력이 적을수록, 여성들이 고용가능성을 정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 Beck)의 명제가 들어맞는 현실이다.³⁾

1989년의 46.5%에 비해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간 늘었으나,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는 나이의 여자들의 참가율이 낮은 것은 여전하다. 1989년 당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여자들은 국졸 이하였는데, 현재에도 판매·서비스·생산직 종사자가 많다는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는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맞을 것이라고 느끼게 한다.⁴⁾ 이러한 우울한 현실에서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1) 결혼은 선택, 취업은 필수

20대 여자들은 여자란 것 자체로 주눅들지 않는 ‘신세대’이다. 30대 여자선배들에게 이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당연시되었다지만,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당연한 ‘여자의 길’이었다. 20대 젊은 여자들에게는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결혼해도 자녀를 꼭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그러나 직장은 꼭 있어야 하며, 그것도 결혼할 때까지, 자녀를 낳을 때까지 다니는 직장이나 아니라 평생직장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물론 윗세대 여자들이 대학을 나오고도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가 되었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졌다 해도 인정을 못받고 집에서 집에서대로 가사, 자녀양육, 시댁과의 관계 등 전통적인 ‘여자일’을 조금도

2) 『한겨레신문』 1996년 11월 20일자.

3) 졸저(1994), 일과 사랑의 심리학. 나남. p.158 이하 참조.

4) 위의 책.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고 볶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취업을 아예 포기도 하지만, 다수는 선배 여자들이 못나서 고전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똑똑해서 차별이나 억압 따위는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하게 되어도 가사분담하며 평등하게 살면 될 것 아닌가? 그들이 모르는 것은 직장과 가정의 여전히 남성 위주로 돌아가며, 아래에 보듯이 그들 자신도 남성우월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2) 남정여부

내가 있는 대학은 남녀공학이고, 심리학과는 여학생이 70% 가량 된다. 해마다 학회장 선거를 하는데, 지난 14년간의 결과를 보면 서너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회장은 남자, 부회장은 여자이다. 학년대표도 남학생이 정이고 여학생이 부이며, 할 남자가 없어야 여자가 정이 되는 것이 상례이다. 단과대, 총학생회로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동아리들에서도 ‘男正女副’가 여전히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여자대학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30대 방송인 전여옥은 여자대학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일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를 말해준다.⁵⁾

나는 대학에서 아주 많은 경험과 훈련을 받았다. 학보사 기사를 거쳐 편집장까지 해본 경험은 방송계에 들어와 나름대로 소득(?)을 올렸고, 학과나 다양한 동아리에서 리더로 활동한 것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적극성과, 상황을 재빨리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만일

내가 남녀공학에 갔다면 대총 부대표나 서기, 경리만 하다 말았을 것이다.

남녀공학은 사실 남자대학이다. 학생회의 ‘남정여부’는 사실 학교사회의 복사판이지 않은가. 총·학장을 비롯하여 보직들은 거의 남자교수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 전공자가 많은 학과에도 여자교수가 거의 없다. 바깥으로 나가보면, 국회에는 거의 남자만 앉아 있고, 텔레비전 뉴스의 앵커도 정인 남자는 나이가 많아도 되지만 부인 여자는 젊고 예뻐야 한다. 남성우월주의는 우리가 들여마시는 공기이며 헤엄쳐 다니는 물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우리 사회가 그리고 대학 사회가 남성중심이라는 것을 의식하지도 이상해 하지도 않는다. 졸업할 때가 가까워 기업들에서 학과에 추천 의뢰가 들어올 때 남학생들에게만 전달되고, 기업들에서 ‘군필남자’를 요구할 때에야 여대생들은 이 사회가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3) 개인주의 성향

신세대가 개인주의적이라 하나, 남자는 ‘조직’이 부르면 싫어도 달려가고, 여자는 ‘조직’이 부르지도 않거나 또 불러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남학생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조직인간으로의 사회화가 돌이킬 수 없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조직의 이름으로 단합하고 선배에게는 복종하고 후배는 때려서라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한 질서로 여긴다. 군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여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군사문화’가 낯설다. 남학생들끼리 모여서 공 차고 술 마시는 일

5) 전여옥(1995). *여성이어, 테러리스트가 되라*. 푸른숲, p. 20 이하.

에 준하는 공동 활동이 여학생들에게는 없다. 도대체 여학생 전체가 모이는 일이 없다.

여자들의 '개인 플레이'는 물론 대학에서 시작된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다. 어릴 때부터 사내아이들은 큰 무리를 지어 밖에서 놀지만, 여자아이들은 작은 집단에서 그리고 주로 집안에서 논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남자들의 우정에는 공동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여자들에게는 정과 친밀감이 우정의 핵심이 된다. 남자의 우정이 오래가는 데 비해 여자의 우정은 쉽게 깨진다는 것이 남자는 무겁고 진실하며, 여자는 가볍고 번덕스럽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흔히 이야기되지만, 이 차이는 남녀의 놀이문화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 여자들은 남에게 말 못하는 비밀을 친구와 교환하는 등 '깊이' 사귀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거나 남이 끼어들면 그만큼 상처를 많이 입는 것이다.

대학에서도 여학생들은 친한 사람들 몇 명하고만 같이 다니고,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남학생들보다 낮다. 여기에는 악순환이 있다. 작고 큰 조직을 남자가 맡아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돌아가면 그만큼 여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참여를 안 하게 되며, 또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남자 위주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여학생들이 여자 동아리를 만드는 일도 없다 - 적어도 내가 있는 대학에서는.

4) 외모에 대한 관심

요즘 여학생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다. 다 이어트는 가장 큰 관심사이고, 화장과 옷, 머리 등의 유행에도 민감하다. 5, 6년 전까지만 해도 졸업반에 가까워져야 화장한 얼굴들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저학년 학생들

도 패션잡지 모델처럼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몸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나는 아직 그런 언급에 정면으로 항의하는 여학생을 본 적이 없다. 우리 학과 대학원생의 석사논문 연구에서 18~25세의 젊은 여성 중 약 반수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체중과 키를 가지고 계산한 바로는 2.1%만이 과체중이었고, 약 2/3가 저체중이었다.

여자는 연약하고 예뻐야 한다는 것은 물론 남성우월주의적 사고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업들은 과거에 '용모단정'으로 점잖고 모호하게 표현하던 것을 과학의 시대인 요즘에는 '160cm 이상, 50kg 이하'로 오해의 여지없이 분명히 요구한다. 여대생들은 '직장의 꽃'이 아니라 '커리어 우먼'이고자 하면서도 일단 '꽃'의 요구조건에 적응, 굴복하고 보는 것이다. '남자는 실력, 여자는 외모'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여학생들이 실력보다는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는 현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남정여부'의 사고를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여대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남성우월주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여대생들을 보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물음은 저절로 해답이 된다. 기성세대에 속하는 교수, 학부모 등 '교육자'들이 우선 가르쳐야 할 것은 남녀평등이란 아직 신화이며 이 사회는 남성중심 사회라는 사실이다.

교육은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로 제

시되지만, 구체적 방법보다는 교육자에서 장애물에 부딪치는 일이 많다. 여대생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정치·경제 지도자,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가 남자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남성중심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자 정치인, 여자 판사 등이 가끔 나오면 ‘여성상위’시대가 왔느니 하며 호들갑을 떠다. 세상의 주인이 남자라는 사실을 가르쳐도, 여학생들을 주눅들여 ‘사회진출을 포기하고, 능력있는 남자 만나 사랑받고 사는 것이 최고’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젊은 여성들에게 이 세상이 남성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남자세계의 게임규칙과 방식, 남자세계에서 여자의 생존 및 자기주장 전략 등을 가르친다는 본론을 위한 서론이다. 교수나 학부모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페미니즘적 의식이 투철하다고 해도, 문제는 ‘언제, 어디서’이다. 사회과학 전공의 교수가 아니라면 강의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가르칠 기회는 거의 없다. 교양, 전공 강의에서 여학생 교육이 힘들다면, 대안은 ‘교양특강’이 된다. 대학생 전체를 위한 교양특강은 인기강사가 온다면 모르지만 대체로 자율적으로 들으러 가는 학생이 별로 없으므로, 학과 내지 단과대학 차원에서 그 학과나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나간 사람들을 불러 경험을 전달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신문에 고정칼럼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이 글에서는 독자가 주로 일반 교수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공식적·비공식적 ‘학생지도’와 (집에서는 학부모로서) ‘가정교육’의 차원에서 여대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여자대학보다 남녀공학 대학이 훨

씬 많기 때문에, 또 내가 다닌 그리고 현재 다니는 대학이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아래의 제안들은 대부분 남녀공학 대학을 전제한다. 이러한 제한은 여자대학에서는 이런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함축하지 않는다. 앞 절에서 지적한 항목들의 순서로 논의하겠다.

1) 결혼 잘하기

대졸여성의 취업을 생각할 때 맞기 쉬운 것은 ‘결혼이 선택’이라 해도 그들 대부분이 결혼하리라는 것, 취업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자의 책임이라는 것, 따라서 특히 평생취업의 경우는 남편, 시집, 직장과 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하나의 문화’는 “결혼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는 제도도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결혼 지위의 사람들의 글을 모아 『새로 쓰는 결혼이야기』 두 권을 펴냈다. 그 1권(‘안에서’)에 실린 좌담에서 신세대의 결혼(관)을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이 다양했다(pp. 30~31).

구세대에게는 결혼이 아이를 낳고 가족을 만들기 위한 시작인데, 신세대는 결혼이 마지막이고 결혼과 가족은 따로 있어요. 결혼은 그 무수한 만남을 거쳐서 결국 클라이맥스로 끝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기 때문에 결혼의 역할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혼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한다고 봅니다.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어디에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 괜찮은 삶인가, 이렇게 살 건가 저렇게 살 건가 모든 것에서 엿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예요.

많은 신세대 여성들에게 결혼은 화려한 결혼식, 공주 같은 드레스를 의미하고, 결혼한 삶에 대해서는 ‘엄마같이 살지 않겠다’, ‘아줌마가 되지 않겠다’는 류의 막연한 각오 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학벌, 직업, 부모재력 등 ‘조건’을 따지는 풍속에 저항하여 “사랑만으로, 오직 사랑이라는 조건만으로” 결혼을 하기도 한다. 위의 책에서 30대 여성 김미경은 여대생들에게 “먼저 일을 가져라. 그리고 결혼은 철저히 조건을 따져서 해라.”고 조언하고 있다.⁶⁾

남녀가 평등하게 살고 있는 세상이라면, 결혼에서 정말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 더 소중한 조건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정말 들이 죽고 못살도록 사랑해 결혼한다 해도 각종 가족관계가 서로를 얽매어 구속할 수도 있고, 다른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이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할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진짜 자기 일을 갖고 자신이 휘둘리지 않을 조건이 아닐 때, 결혼은 영원히 질곡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에서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결혼하고도 결혼 전과 크게 생활이 달라진 것이 없을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결혼에 대해 정말 곱씹어 보고 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따졌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결혼한 여자가 자기 일을 갖고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 시집과 조화롭고도 당당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곱씹어 보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철저히 조건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특별나게

조건을 따져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내 결혼이 우리 사회 결혼제도와 동떨어진 별개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영향권 내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결혼은 계속적으로 따지고 부수고 새롭게 세우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끌어 나갈 수 있을 뿐”(p. 79)인 것이다.

2) 남정여부에 도전하기

대학의 ‘남정여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학의 교수와 총·학장이 거의 다 남자, 은행에 가면 앞줄에서 상냥한 웃음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은 거의 다 여자, 그 뒤에서 도장 찍는 사람은 거의 다 남자라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 사회 현실 속에서 꽃으로, 판매·서비스 담당으로 남지 않으려면, 대학 현실에서 도전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교수나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리더십 있는 여학생이 작고 큰 조직의 長으로 나가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학회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현실이므로, 본인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위 학생들과 교수의 격려와 지지로 후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학회장 자리를 기피하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다. 행사기획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서 참여율도 낮고 이런저런 뒷말도 들어야 하는 것이 좋을 리 없다. 그러나 군대 경험이 없는 여학생들은 조직을 앞에 나가 이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볼 필요가 있고, 좌절과 실패까지도 중요한 학습경험이라는 건설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내 많

6) 김미경(1996), 따지고, 부수고, 새롭게 세우며. 새로 쓰는 결혼이야기. 또한나의 문화. pp. 78~79.

은 조직들이 남성중심적으로, 군대식으로 돌아가는데, 여학생 리더가 다른 여학생들의 도움으로 여성적 리더십을 실험해 볼 수도 있다.

자기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시간이 없다면, 동년배나 후배들 중에서 능력과 의욕이 있는 ‘짜수 있는’ 여학생을 ‘키워’ 볼 수가 있다. 거창하게 말해서 ‘배후세력’이 되는 것이다. 키운다는 것은 뽑아서 앞에 내보내는 일에 더하여 그 사람이 일을 잘하도록 격려, 협조, 참여를 아끼지 않는, 그야말로 든든한 ‘뺨’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학생이 여학생들의 격려와 협조를 받아가며 조직을 맡아 잘 이끌어 간다는 것은 여학생들뿐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교육효과가 있다. ‘여자들도 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경험은 남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그리고 나아가 직장에서 여자를 동료 내지 리더로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대학은 여학생의 조직 리더 경험에서 강력한 장점을 갖는다. 남녀공학이 “남성중심 구조에서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적응해버리는 여성”을 만들어내기 쉬운 데 비해, 여자대학에서는 “‘의문’을 지니고 꺾꺾하게 앞을 향해 가는 여성상”을 심어줄 수 있다.⁷⁾

나는 처음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 여성이 이 사회에서 노예이며 찬밥 신세라는 현실을 왜 가르치지 않았는가 원망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한계를 가르치지 않은 학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미처 돌다리가 놓이지 않은 개천을 건너며 상처와 피와 땀을 흘렸지만, 나는 일단 그 강을 건너보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적인 것은 남녀공학, 여자대학이라기보다는 대학에서의 리더 경험이다. 남성중심 구조에 의문을 품고 도전하기를 대학에서 연습해보지 않을 때, 사회에 나가서는 더 많은 피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조직생활 훈련 또는 조직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여대생들은 대학에서가 아니면 개인적 친분과 감정을 접어두고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단결하는 훈련을 할 곳이 없다. 소속한 동아리도 없고, 학과모임에도 불참하며 수업에만 열심히 나오는 ‘모범생’들은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한 이유로 그러한 생활은 여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교수나 학부모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학점이 대학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미 조직인간으로 사회화되어 있는 편한 남학생들만 편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열의를 가지고 여학생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동아리에서 활동하거나, 학과내에서 또는 학과를 초월하여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거나 또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참가자를 모아 보는 등 크고 작은 공식·비공식의 조직생활 경험을 해보도록 권유하고, 스터디 주제, 방법 등에서 도움을 주면 더 좋을 것이다.

나는 여학생들이 남성중심 구조에 의문 없이 순응만 하는 것이 불안하다. 이를테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160cm 이상, 50kg 이하’에 다다르려고 애쓰는 것이다. 여학생들의 조직생활 훈련은 학생들이 크고 작은 조직들에 참여하거나 리더되기 이상을 의미해야 한다. 그들은 직장가 가정에서 부딪힐

7) 전여옥, 앞의 책, p.20~21.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투쟁'을 대학에서 연습해야 한다. 투쟁은 '운동권'을 연상시키지만, 운동권 학생들은 '독재정권 타도', '광주 문제' 등에 대해서는 '투쟁'하면서, 개인생활과 학교생활의 불의와 비리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 '학내문제'라야 등록금 투쟁 정도에 그친다. 운동권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일례로, 교실 난방이 안 되어 늦가을, 초봄이면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감기에 걸려 고생하지만, 나는 아직 이 문제로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바 없다.

여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투쟁할 문제들은 많다. 기업체들에서 온 추천의뢰서를 남학생들만 불러서 주는 관행, 교수의 성차별적 언행 - 예컨대, "여학생들은 시집 가면 그만이니까, 좋은 학점은 취업할 남학생들에게 양보하라" - , 남자교수나 남학생들의 성희롱 등이 그것이지만, 학과에 따라 여자는 조교 안 시키기, 박사과정 안 뽑기 등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혼자 울거나 화내고 기껏해야 가까운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고작이고, 현장에 있는 다른 여학생들은 "내가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나 같이 흥분하는 이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이러한 부당함들을 공론화하는 길은 사실 많이 열려 있다. 거의 모든 대학에 교내 신문과 방송이 있으며,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일 수도 있다. 요즘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할 수도 있다. 교수나 학부모는 여학생들의 직접·간접 피해에 대해 들을 때 그냥 잊어버리라고 조언할 것이 아니라 공동대응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인은 무력

하나, 집단은 강하다.'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 '집단'은 클수록 좋다. 대졸, 관리직뿐 아니라 고졸 또는 생산직에 있는 여자들이 당하는 차별도 남의 일이 아니라 '여자'의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남녀를 차별하는 구조가 존재하는 한, 대졸여성이라고 차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도 대학에서 할 일이다. 나아가 투쟁은 모든 차별에 대한 투쟁일 때, 가장 큰 도덕적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생산직 차별, 외국인 노동자 차별 등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하며, 투쟁 없이는 그런 정당한 세상은 오지 않는다.

4) 실력 키우기

리더십, 당당함, 투지도 실력이지만, 좁은 의미에서 실력이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증, 입사시험 과목들의 공부, 컴퓨터 및 외국어 실력,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지식 등을 포괄한다. 남이 한다고 해의 어학연수를 가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한 취업정보를 계속 입수해야 할 것이다.

넓게는 체력과 인간관계도 실력이다. 여자라고 힘든 일을 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건강과 체력은 하루 아침에 키우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 때부터 살 뺀다고 굶을 것이 아니라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도 재산이다. 앞서 지적한 개인주의 성향, 조직 무관심 등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지인의 폭이 좁다. 여자 졸업생들은 졸업후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써먹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인간관계를 맺는다고기보다는 작고 큰 조직들에서 적

극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저절로 지인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5) 본 보이기의 중요성

지금까지 논의한 종류의 교육은 만남과 대화를 통한 설득, 훈계보다는 본 보이기(심리학에서는 모델학습, 모델링이라 한다)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교수나 부모의 말보다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자격이 있어도 여자 동료를 뽑지 않고, 여자 제자를 받지 않고, 여자는 예뻐야 하고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등 남녀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남자교수들, 요조숙녀로 나서거나 여자임을 부정하며 여자와의 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교수들은 여대생들에게 취업을 포기하거나 근

시안적인 이기주의의 길을 가게 부추긴다. 교수들이 나서서 사회, 기업, 대학의 여성차별적 관행에 항의할 때, 꼭 남녀차별 문제가 아니라도 옳은 일을 위해 '조직에 조직적으로 맞설' 때, 그들은 여학생 개개인을 상대하지 않아도 이 특집에서 의미하는 '여대생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홍숙기/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강원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일과 사랑의 심리학』, 『젊은이의 정신건강』(공저) 등이 있고, "사회문제와 국민성, 그리고 개혁을 위한 제안들", "현대와 탈현대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공동체정신"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